류현진, 전반기 마지막 등판 5일 샌디에이고전

시즌 10승 · 메이저리그 통산 50승 도전

'코리안 몬스턴' 류현진(32·LA 다저스)의 전반기 마지막 상대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다저스는 3~4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연전을 치르고, 5일부터 샌디에이고와 4연전을 벌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로스 스트리플링이 3일 경기에 등판한다. 이후 4~6일에는 워커 뷸러와 류현진, 클레이턴 커쇼가 차례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류현진은 7월5일 오전 10시10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의 4연전 첫 경기에 출격한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시즌 10승, 메이저리그 통산 50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올해 빠른 속도로 시즌 9승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4이닝 9피안타(3홈런) 1볼넷 4탈삼진 7실점 7자책으로 시즌 최악투를 기록하며 시즌 2패째를 안았다. 평균자책점은 1.27에서 1.83으로 올랐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무척 강했던 홈에서 전반기 피날레를 장식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홈 구장에서 8경기 6승무패 평균자책점 0.94로 '무적'이었다.

상대팀 샌디에이고에 대한 기억도 좋다. 올해 샌디에이고전 등판은 처음이지만 지난해까지 통산 10경기 7승1패 평균자책점 2.26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류현진이 전반기에 10승을 올린 건 빅리그 2년차였던 2014년이 유일하다. 5년 만에 다시 전반기 10승을 노린다.

올스타전 등판도 유력하다. 올스타전은 10일 오전 8시30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다.

일정대로라면 류현진은 5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나흘을 쉬고 올스타전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야후스포츠는 '올스타전에 출전해야 할 선수' 명단을 꾸리며 류현진을 포함시켰다. 올스타전에 나서는 투수 명단은 1일 공개된다.

뉴시스

"발렌시아, 이강인 임대 결정"…완전이적은 사실상 불가

이강인(18)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를 떠나 임대 이적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발렌시아 지역지인 수페르데포르테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발렌시아가 이강인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음 시즌 발렌시아에서 뛰지 않을 것이다.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발렌시아 감독은 이강인을 임대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인 이강인에게 발렌시아 1군 팀 자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선수와 구단 모두에 가장 좋은 결정은 그가 다른 팀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강인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 대회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골든볼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국왕컵에 출전해 한국인 최연소 유럽 1부 리그 출전 기록을 세웠고, 올해 발렌시아와 1군 정식계약을 맺으며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했다. 그러나 이후 출전 기회가 크게 줄었다. 3경기 교체로 나선 것이 전부다.

자연스레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 임대 선수로 활용한 러시아 국가대표 미드필더 데니스 체리셰프를 완전 이적으로 영입하면서 이강인의 입지가 다소 불분명해졌다.

여기에 발렌시아와 연고가 같은 레반테는 물론 에스파뇰, 그라나다 등 프리메라리가 소속 클럽에 아약스, PSV 에인트호번 등도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며 팀을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완전 이적이 아닌 임대 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발렌시아는 완전 이적을 원할 경우 최소 이적 허용 금액인 8000만유로(약 1052억원)를 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매체는 "발렌시아의 목표는 이강인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를 찾는 것"이라면서 "매각이라는 선택지는 발렌시아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D-11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도시 광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답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민주 · 인권의 도시' 광주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반적인 준비상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주목해야 할 수영스타 등을 소개한다.

'저비용 · 고효율 대회' 성공 신호탄

지난달 27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과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왼쪽)이 수구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6개 종목 경기장 시설 마무리

이번 대회는 저비용·고효율로 치르기 위해 모든 종목의 경기장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 현재 경기장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외관 작업과 막바지 안전점검이 한창이다.

총사업비는 2036억원으로 운영비가 1304억원, 시설비가 732억원을 차지한다. 대회 규모가 비슷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총사업비 3572억원 대비 57%에 불과한 예산이다.

주경기장으로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국제수영장은 관람석을 기존 3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증축했다.

수구경기장은 남부대 운동장에 임시수조 2개를 만들어 관람석 4340석을 설치했다.

아티스틱수영이 치러지는 염주종합체육관에도 임시수조 2개가 들어섰으며, 조선대 하이다이빙경기장도 공사를 마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오픈워터수영이 열리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도 2.5km 코스 부표와 출발대가 설치됐으며 임시 관람석 2095석도 마무리됐다.

◇'집약된 지구촌' 선수촌 손님 맞이 한창

이번 대회에는 현재까지 193개국에서 임원과 선수, 심판진, 해외 미디어 등 7806명이 참가 등록을 했다.

이 중 193개국 선수 2893명과 미디어 관계자 등이 묵을 선수촌이 오는 5일 공식 개촌한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은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해 건립했으며 25개동 1660세대로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선수촌에는 편의·위락·건강시설 등 3개 분야 16종, 22개 시설을 운영한다.

편의시설은 은행, 편의점, 우체국, 카페, 면세점 등이 들어서고 플레이룸, ICT 체험관, 삼성체험관 등의 위락시설이 선수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선수촌 객실은 종교, 정치, 문화, 언어 등을 고려해 배정하고 100여 종의 뷔페식 급식을 제공한다.

선수촌 내부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선보여 각국 선수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안전대회로 성공 개최 견인

이번 대회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단체까지 총 동원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했으며 마스터즈대회가 끝나는 8월18일까지 운영한다.

본부는 대회 직접시설 내·외곽의 경비, 치안, 교통, 출입국, 사이버 안전 등 전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대비할 계획이다.

대회시설 내에 20개 의무실을 설치하고 31개 전담병원 운영을 통해 응급환자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선수촌에 감염병 관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의심환자 모니터링과 증상별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선수촌 1곳과 경기장 5곳에는 도핑관리실을 운영해 선수들의 혈액과 소변 등의 약물검사를 진행한다.

◇'빛고을 광주'의 손님 맞이 분주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방문객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88개 노선 249km 구간을 정비하고 경기장 안내판도 175곳에 설치했다.

임시주차장은 남부대수영장 인근 영산강변에 1100면, 염주체육관에 469면, 조선대축구장에 310면을 마련했다.

외국 관광객을 대비해 시내버스 101개 노선 999대와 택시 8024대가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회 기간 중 KT 북광주지사가 공식 콜센터(1588-1055)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콜센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운영하며 통역이 가능한 18명의 운영요원이 교대로 근무한다.

대회시설과 도심 폭염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시는 다중집결지역에 무더위쉼터 1500곳, 그늘막 260곳, 쿨링포그(물안개) 시설 5개를 설치하고 살수차 70대를 50개 노선에서 가동한다.

6개 종목 경기장 시설 마무리 후 안전점검

선수 안전 철통경비 · 광주시 손님맞이 한창